

2023 시즌 향한 '호랑이 군단'의 질주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미국 투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나성범 "난 여기 사람, 컨디션 최고"
김도영 "모든 게 생소해 재미있다"
김선우 "날씨도 좋고 많이 배워요"
앤더슨·메디나 밝은 표정으로 훈련

여기는 애리조나, '호랑이 군단'의 질주가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2023시즌을 위한 스프링캠프에 돌입했다. 3년 만에 재개된 해외 전지훈련 장소로 애리조나를 선택한 KIA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의 첫 단을 소화했다.

4일 하루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한 선수들은 5일 다시 스파이크 끈을 동여했다.

지난 3일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면서 고생하기도 했고, 생각보다는 바람이 쌀쌀하지만 훈련하기에는 좋은 날씨다.

훈련장 시설도 잘 갖춰졌다.

KIA가 캠프지로 사용하는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는 1개 메인 스타디움, 7개 야구장, 클럽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어 KT 위즈와 '이웃 사촌'으로 함께 훈련하고 있다. WBC 대표팀도 14일 이곳에 소집돼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는 KIA 선수단과 달리 WBC 대표팀 소속으로 이곳에서 훈련을 이어가게 될 나성범에게는 투싼은 익숙한 장소다.

나성범은 "장단 첫째 열기장에서 훈련했고, 지금 NC가 쓰는 투싼 리드 파크에는 2년 차부터 왔으니 여기 사람이다. 컨디션 좋다"고 웃음을 보였다.

"최고점" 최형우는 자비를 들여 황대인, 류지혁을 이끌고 지난달 15일 일찍 이곳에서 와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적응을 끝냈다.

익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두 베테랑과 달리 달리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프로 두 번째 시즌에 처음 미국을 찾아 캠프를



KIA 타이거즈의 선수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컨디션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치르고 있는 김도영은 "신인 때와 같이 정신 없다"면서도 "재미있다.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생소해서 재미있다. 전부 다 처음이니까 하루하루 다 다르니까 재미있다"고 첫 해외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훈련을 많이 한다는 게 재미있고 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훈련하다 보면 부족한 점을 알게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강한테 여기는 오늘하고 안 되면 내일 하는 훈련이라서 조절하는 게 어렵다. 지금 배팅감이 좋은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시즌 들어가려면 조절이 중요한데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부분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직 시차 적응이 끝나지 않아서 고생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유독 웃는 얼굴이 눈에 띄는 선수도 있다. 지난해 프로 첫 무대를 밟았던 포수 김선우가 3

년 차에 처음 해외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김선우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다"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 모든 게 처음이다. 미국도 처음 와서 신기하다. 야구장에서 훈련하기 좋고, 날씨도 좋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로 가세한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시선이 가는 캠프, 두 선수는 이미 새 팀 적응을 끝냈다.

손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새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가자'를 외치기도 하고 카메라를 향해 한국식 하트 손인사를 하면서 포즈를 취하기도 한다.

첫 팀 때 불펜피칭까지 소화하면서 '외국인 강속구 듀오'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wool@kwangju.co.kr

김대유, '긍정의 힘'으로 업그레이드

보상선수 합류 좌완 불펜 투수
"재미있다·상쾌하다" 주문 걸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김대유(사진)가 '긍정의 힘'으로 업그레이드해 나선다.

KIA는 지난 스토브리그 때 박동원의 FA 보상선수로 좌완 김대유를 영입했다. '안방 마님'을 지키지 못했지만 확실한 좌완 불펜을 더하면서 KIA 마운드에 눈금이 쏠린다.

김대유는 5일(현지시간) 캠프 첫 불펜피칭을 하면서 새 팀에서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섰다. 불펜 피칭을 마친 김대유는 혼잣말로 "재미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김대유는 "지난 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톱토스하고 피칭 들어왔다"며 "일부러 '재미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공 던지는 게 재미있어야 야구장 나오는데 상쾌하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주문 가는 것이다"고 웃었다.

그냥 주문만은 아니었다. 첫 피칭 결과도 좋았다. 김대유는 "그런데 괜찮았으니까 그렇지 안 좋았으면 말도 안 했을 것이다(웃음).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며 "긍정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강하게 변한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게 변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다.

이날 피칭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생각으로 첫 피칭에 나선다. 내 시간이기니까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운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다"며 "다 던져 봤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생각보다 포수에게 정확하게 갔다(웃음). 첫 피칭이니까 이상한데 던지고 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던졌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팀에서의 적응은 아직 '진행형'이다. 김대유는 "일단 시차 적응도 안 끝났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 피칭은 처음



했는데 이제 다른 포수들이랑 다 한번 해보려고 한다. 포수들이랑 호흡을 봐야 한다. 어떤지 이야기 많이 해봐도 된다"며 "적응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인데 내가 가진 스케줄을 코치님들과 이야기해보고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처음 마운드 올랐으니까 경기하는데 무리하지 않도록 강도를 높여 가려 한다. 경기 들어가면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차근차근 알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좋은 두 시즌을 보냈지만 만족은 없다. 변화와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김대유의 이야기다.

김대유는 "모든 투수가 다 그렇겠지만 늘 새로운 노력은 해야 한다. 내가 엄청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유형은 계속 변화를 줘야 한다. 영입 비밀이니까 말할 수는 없다(웃음)"며 "타자들이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 최대한 적응 잘해서 즐겁게 캠프를 마치고 가겠다.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것만 계속 넣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도움 없었지만... 손흥민, 올 시즌 최고였다

토티넘, 맨시티에 1-0 승 이끌어

토티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세 번째 개인 통산 200호골 고지를 밟은 해리 케인(30)의 활약을 앞세워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 설욕했다.

토티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티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2022-2023 EPL 2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15분에 나온 케인의 선제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리그 연승을 달린 토티넘(12승 3무 7패·승점 39)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권인 4위 뉴캐슬(승점 40)을 바짝 뒤 쫓았다.

토티넘은 손흥민의 멀티 골로 프레스턴 노스 엔드를 3-0으로 격파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라운드 경기를 포함, 공식전 3연승을 내달렸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맨시티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후반에만 4골을 내주며 무력하게 진 경기(2-4 패)의 설욕에도 성공했다.

반면 시즌 4번째 패배를 당한 2위 맨시티(14승 3무·승점 45)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2)에 승점 3차로 추격을 허용하게 됐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함께 토티넘의 페널티아크 부근부터 내달려 상대 페널티아크까지 질주하며 맨시티 미드필더, 수비진을 괴롭혔다.

이외에도 드리블 돌파와 전진 패스로 토티넘 역습의 선봉에 선 손흥민(31)은 후반 32분에는 개인기로 수비수를 제친 후 페널티아크 뒤편에서 원발로 감각 차 직접 골문을 노리기도 했다.

후반 39분 중앙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와 교체된 손흥민은 84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UCL과 FA컵에서 2골씩 넣은 기록을 더하면 공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티넘 홉스퍼 손흥민(왼쪽)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티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상대로 열린 2022-2023 EPL 22라운드 홈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8골 3도움이다.

승부를 가른 득점은 전반 15분 케인의 발에서 나왔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상대 패스를 끊어낸 후 페널티박스까지 전진해 오른쪽으로 공을 내줬고, 케인이 쇄도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이 골로 케인은 1992년 EPL 출범 후 통산 200 득점을 기록한 역대 3번째 선수가 됐다. 304경기만의 쾌거다.

앞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배'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441경기)와 웨인 루니(491경기)가 각각 260, 208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또, 케인은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토티넘 공식전 267골을 올린 케인은 1950-1960년대 최고 골잡이로 군림한 지미 그리브스(266골)를 제치고 새 역사를 썼다.

케인은 프로 데뷔전을 치른 2011년부터 이날까지 토티넘에서만 공식전 415경기에 출전, 정규리그에서 200골, 컵 대회에서 22골,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45골을 넣었다.

케인은 이외에도 이날 4번의 슈팅을 더해 양 팀 통틀어 최다 슈팅(5회)을 기록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쇼트트랙 박지원, 월드컵 5차 대회 2관왕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박지원(서울시청)이 월드컵 5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2022-2023시즌 월드컵 종합 랭킹 1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박지원은 6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1500m 2차 레이스에서 2

분18초263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는 전날 열린 남자 1000m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월드컵 랭킹 총점 868점을 마크해 2위 홍경환(634점), 3위 스티븐 뒤부아(524점)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월드컵 랭킹은 1~6차 대회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가린다. 월드컵 6차 대회에서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연합뉴스